

#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 세대 간 지원 제공 및 수혜의 의미

##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 Grandmothers' and Employed Mothers' Relationship Experiences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조교수 이재림\*\*\*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Assistant Professor : Lee, Jaerim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ived experiences of grandmothers who provide child care services to their grandchildren and employed mothers who utilize child care by grandmothers, with regards to their relationships while exchanging the specific type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The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42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21 pairs of employed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younger than elementary-school age and their mothers or mothers-in-law who had provided child care on a daily basis for their grandchildren. Our phenomenolog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grandmothers felt uncomfortable and overwhelmed when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and that they considered this activity to be different from caring for their own children by nature. However, the grandmothers wanted to help their adult children based on their feeling of "*boo-mo-ma-eum*" (meaning parental heart, i.e., love or care). The employed mothers perceived that they were substantially dependent on the grandmothers by receiving help with child care and housework. Reliance on grandmothers was inevitable and beneficial to these mothers. Dynamic intergenerational living arrangements enabled the dependent relationships. The grandmothers set specific boundaries pertaining to current and future child care so that they would not take on too much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The mothers used various strategies that contributed to stable child care support from the grandmothers. Providing financial remuneration was an important strategy that had symbolic relational meanings, such as expressing gratitude, rather than financial meanings.

---

▲주요어(Key Words) : 고부관계(relationships between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모녀관계(relationships between older mothers and adult daughters), 세대 간 양가성(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세대 간 지원(intergenerational support),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child care by grandmothers)

---

\* 이 연구는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NRF-2010-354-C00002), 2012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University of Minnesota Graduate School의 2008-2009 Doctoral Dissertation Fellowship의 지원을 받았음.

\*\*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일관성을 위하여 손자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조모(친조모, 외조모)', '취업모', '손자녀'를 사용

---

하였음. 조모는 모(친정모, 시모)이기도 하고, 취업모는 딸 또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조모와 취업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취업모 부부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성인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주저자·교신저자 : 이재림 (E-mail : jaerimlee@skku.edu)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취업모 가족에서 조모에게 어린 자녀를 맡기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양육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세 이하인 취업모의 자녀 중 42.9%를 조부모가 돌보았으며, 만 1세 이하의 경우에는 57%를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정부의 보육비 지출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으나 비혈연인의 돌봄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취업모의 경우 자녀양육을 조부모, 특히 조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Chin et al., 2012; Lee & Bauer, 2013).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13).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취업모의 증가에 따라 조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선뜻 손자녀를 돌보겠다고 자처하는 조모는 감소하고 있는 맥락과도 관련이 깊다. 가족돌봄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년기를 보내고 싶어 하는 현대 여성노인의 특성상(Kim & Chung, 2011) 손자녀 양육지원은 부담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Choi, Kim, & Yeom, 2012)의 조사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조모는 50%도 되지 않았다는 결과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Baek et al., 2011)의 연구에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이유로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대중매체나 일반인들의 대화에서도 손자녀 양육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노년층에서는 '손주 안 봐 주는 방법'이 한동안 인기 있는 농담거리였고, 신문지상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이슈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친족 상호작용의 양계화 경향과 관련이 깊다(Sung, 2006). 기혼여성이 친정과 교류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국의 친족관계가 양계적 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때 실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외조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취업모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외조모와의 교류가 증가하는 등 처계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는 것만을 토대로 현대 한국가족의 친족관계가 양계적 속성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앞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양계화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혼남녀가 부모세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부계나 처계나에 따라 다르며(Han & Yoon, 2004), 실제로 Ok(2011)은 현대 한국가족의 특징을 개괄하면서 한국의 친족관계가 진정한 양계적 속성을 갖는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Lee and Bauer(2013)는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로 선택하는 동기를 분석한 결과 외조모의 경우에는 성인 딸의 양육자 역할을, 친조모의 경우에는 성인 아들의 부양자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중요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양계적 특징의 이면에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여성취업모나 양계화의 맥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이고 언론 및 일상대화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인 논의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모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거의 모든 연구가 조모 개인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경험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조모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조모와 취업모 두 사람 사이에서 교환되는 현상이라는 점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손자녀 양육지원은 조모와 취업모 두 사람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갖는 관계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있어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성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모와 취업모 양측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조모의 경험에만 주목했을 뿐 취업모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자녀 양육지원의 동기를 연구하기 위해 조모와 취업모를 동시에 면접한 연구(Lee & Bauer, 2013)가 한편 있을 뿐이다. 성인 딸의 모녀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취업모를 면접한 연구(Kim, Lee, & Lee, 2010)가 있으나 손자녀 양육지원이 이 연구의 중심상황은 아니었다.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근거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실체(realities)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조되고, 유지되며, 해석되는 것이며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Gubrium & Holstein, 1990; Hagemester & Rosenblatt, 1997).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조모와 취업모가 양육지원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관계 경험 역시 이들이 처한 가족의 맥락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구성되고 변화할 것이다. 결국 조모와 취업모가 공유하는 관계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배경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현상의 다면적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제공하는 조모와 양육지원을 받는 취업모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취업모 가족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이러한 지원을 받는 취업모 사이의 관계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공유하는 관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는 취업모와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와 ‘조모의 양육지원을 받는 취업모는 조모와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이다. 이러한 목적과 연구문제는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현상이 양육지원을 제공하는 조모와 이를 이용하는 취업모 양방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점, 따라서 조모와 취업모의 모녀관계 또는 고부관계 경험이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Gattai & Musatti, 1999)는 점에 염두를 둔 것이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조모의 양육지원을 활용하는 취업모 양측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고 비교한다. 이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매개로 한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통합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세대 간 지원의 한 가지 유형에 대한 보다 역동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한 후, 손자녀 양육지원의 경험 또는 결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연구는 조모의 양육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연구한 경우가 많아 본 장의 선행연구 고찰 역시 조부모의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전 세계적인 현상임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Choi et al., 2012; Lee & Bauer, 2010), 중국(Cong & Silverstein, 2011; Settles et al., 2009), 타이완(Sun, 2008) 등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보편적이며, 유럽의 여러 국가(Hank & Buber, 2009; Kriz, 2005; Thomese & Liefbroer, 2013) 및 미국(Fuller-Thomson & Minkler, 2001), 호주(Goodfellow, 2003; Goodfellow & Laverty, 2003) 등에서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의 성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Hank and Buber (2009)는 유럽 10개국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조부모의 양육지원 빈도가 높았음을 밝혔다.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은 조손가족의 조부모와는 달리 이차적 혹은 임시적인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는 주당 평균 약 50시간을 손자녀 돌봄에 사용할 정도로 조모의 양육지원은 장시간의 일차적 양육형태 중 하나이다(Choi et al., 2012; Lee & Bauer, 2010). 한편 영국 등 서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Arthur, Snape, & Dench, 2003), 한국 조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Oh(2007)의 연구에서는 약 84%의 조모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금 선물이 보편적인 한국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손자녀 양육지원은 국가별로 빈도나 강도뿐만 아니라 문화나 인종,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은 유색인종(Kataoka-Yahiro, Ceria, & Yoder, 2004; Uttal, 1999)이나 저소득층 가족(Fuller-Thomson & Minkler, 2001; Katras, Zuiker, & Bauer, 2004)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래의 경제여건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은 조모와 좋지 않은 조모 모두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Bauer, 2010). 그러므로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는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는 도구적 가족주의(장경섭, 2009)의 영향으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맥락, 특히 최근에는 기혼 성인 자녀가 부모의존적 동거를 하는 이른바 ‘연어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동아일보, 2012) 한국 가족의 맥락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취업모 가족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선택하는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 성역할 유지기제로서의 양계적 가족주의(bilateral familism supporting traditional gender role ideology)’를 핵심범주로 제시한 Lee and Bauer(2013)의 연구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예로 볼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는 조손가족의 조부모에 관한 연구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손자녀 양육지원과 관련된 해외의 연구는 세대 간 지원(intergenerational support)이나 세대 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의 한 가지 예로 손자녀 양육지원을 다룬 연구가 가장 보편적이다(Cardia & Ng, 2003; Cong & Silverstein, 2011; Dimova & Wolff, 2008; Geurts, Poortman, & van Tilburg, 2012). 이외에는 양육지원을 하는 조부모의 특성(Baydar & Brooks-Gunn, 1998; Fuller-Thomson & Minkler, 2001; Lee & Bauer, 2010)이나 손자녀 돌봄의 빈도 혹은 강도의 다양성(Bowers & Myers, 1999; Vandell et al., 2003) 등 현상파악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며 양육지원을 하는 조부모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Gattai & Musatti, 1999; Goodfellow, 2003; Goodfellow & Laverty, 2003; Kataoka-Yahiro et al., 2004). 미국

에서는 친족의 양육지원(Brandon, 2000; Uttal, 1999)이나 'kith and kin care' 또는 'FFN care'라고 불리는 가족(family), 친구(friend), 이웃(neighbor)의 양육지원의 한 가지 형태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Brown-Lyons, Robertson, & Layzer, 2001; Shivers, 2006). 반면 유럽에서는 최근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는데 주로 복지체제나 여성취업, 출산의 맥락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Gray, 2005; Hank & Buber, 2009; Kriz, 2005; Thomese & Liefbroer, 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국내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의 양적 연구는 손자녀 양육지원이 조모 개인에게 가져온 결과를 주로 분석했는데, 예를 들어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Bae, 2007; Kang, 2011; Yang, Chung, & Kim, 2008), 생활만족도(Chung & Kim, 2010; Kim, 2009; Lee & Yun, 2011), 건강(Baek, 2009), 우울(Kim, Park, & Kim, 2010; Won, 2011), 양육스트레스(Kim & Chung, 2008; Lee, Kim, & Chung, 2009; Oh, 2006, 2007; Park & Jung, 2010) 등 주로 조모 개인 수준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최근의 질적 연구 역시 조모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im, 2007; Kim & Bang, 2011; Kim & Chung, 2010; Kim & Chung, 2011; Kim & Seo, 2007; Lee, 2007; Yee et al., 2009). 조모 또는 조부모의 양육지원 실태와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기관의 보고서(Baek et al., 2011; Choi et al., 2012)가 최근 발간되기도 하였다.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의 내용이나 결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손자녀 양육지원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공존하는 양면적 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부모의 경험을 연구한 거의 모든 질적 연구에서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즉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는 보람, 기쁨, 활력, 뿌듯함 등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신체적 부담 및 피로, 자유시간 부족, 외출의 제약,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한다(Choi et al., 2012; Gattai & Musatti, 1999; Goodfellow & Lavery, 2003; Kataoka-Yahiro et al., 2004; Kim, 2007; Kim & Chung, 2010; Kim & Bang, 2011; Kim & Chung, 2011; Kim & Seo, 2007; Yee et al., 2009; Wearing & Wearing, 1996). 조모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인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이나 뿌듯함(Kim & Chung, 2011), 성인 자녀에게 당당함(Kim & Bang, 2011) 등 긍정적인 경험도 하였으나 성인 자녀에 대한 불만 또는 갈등(Kim & Bang, 2011; Kim & Chung, 2011), 고부관계의 어려움(Lee, 2007) 등 부정적인 경험도 함께 하는 것으로 국내 연구에서 나타났다. 해외 질적 연구에서는 호주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서 손자녀의 부모인 성인 자녀와 더 자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나, 성인 자녀가 양육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양육지원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부정적 경험을 한다고 보고되었다(Goodfellow, 2003; Wearing & Wearing, 1996). 성인 딸이나 며느리에게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느낀다는 이탈리아 조모에 대한 연구도 있다(Gattai & Musatti, 1999).

이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손자녀 양육지원의 경험이 어떠한지, 양육지원은 조모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의 양면성을 밝힌 최근의 연구결과는 현상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이 조모와 조모의 성인 자녀, 특히 성인 딸이나 며느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되는 현상이라는 점, 즉 손자녀 양육지원의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접근을 사용한 국내외의 연구에서 조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주요 주제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Gattai & Musatti, 1999; Lee, 2007; Kim & Chung, 2011; Kim & Seo, 2007) 이러한 관계 경험을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조모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양적 연구는 조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갈등에 관한 Kim et al.(2011)의 연구 정도에 불과하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음을 감안할 때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모가 조부에 비해 손자녀를 돌볼 가능성 높거나 돌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Dimova & Wolff, 2008; Fuller-Thomson & Minkler, 2001; Hank & Buber, 2009; Thomese & Liefbroer, 2013).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는 조부모를 함께 연구하거나 조모만을 연구하더라도 조모가 전통적 성 역할 수행의 일환으로 손자녀 양육도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조모의 양육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부가 아닌 조모가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손자녀 양육지원이 돌봄노동의 한 가지 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나아가 손자녀 양육지원의 중심에 조모와 취업모가 있는 반면 조부나 취업모의 남편 등 남성도 주변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모와 취업모 간의 관계 경험을 연구의 핵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모와, 이 취업모의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취업모의 친정모 또는 시모를 쌍으로 모집하였다. 표집방법은 전형적 사례를 선택(Goetz & LeCompte, 1984)하는 의도적 표집(Patton, 2002)과 눈덩이표집을 사용하였다. 전형적 사례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는 한국 조모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Lee & Bauer, 2010)를 참고로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직업군의 취업모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조모와 취업모는 쌍으로 모집하였으나, 솔직하고 편안한 면접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면접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의 질문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면접내용을 함께 구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적극적 면접법(Holstein & Gubrium, 1995)의 원칙에 따라 연구주체의 범위 안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순서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의 상당한 부분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취업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취업모가 자녀를 조모에게 맡기고 조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할애하였다. 예를 들어 조모에게는 '손주를 봐 주시니 어떠세요?'라는 질문을, 취업모에게는 '어머님에게 아이를 맡기시니 어떠세요?'라는 질문을 한 후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질문을 하였다. 면접은 2008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참여자의 집 또는 직장근처의 커피숍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녹음기로 녹취된 면접자료는 꼼꼼하게 전사한 후 녹음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 2. 면접참여자의 특성

면접참여자는 조모와 취업모 21쌍, 총 42명이었으며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모 21명 중 13명(61.9%)은 취업모의 친정모(외조모)였고 8명(38.1%)은 취업모의 시모(친조모)였다. 조모의 면접 당시 평균 연령은 만 54세에서 만 70세 사이였으며 평균 만 60.7세였다. 조모는 주로 2명(52.4%) 또는 3명(23.8%)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자녀의 수는 평균 2.62명이었다. 사별한 2명(9.5%)의 조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혼 상태였다.

면접에 참여한 조모들은 전일제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주당 평균 58.6시간 손자녀를 돌보았다.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

의 연령은 만 2개월에서 5세 사이였는데 12개월 미만이 6명(28.6%), 12~23개월이 7명(33.3%), 2~3세가 4명(19.0%), 4~5세가 4명(19.0%)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3세대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7명(33.3%), 손자녀가 주중에 취업모와 떨어져 조모의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6명(28.6%), 손자녀를 아침에 조모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밤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4명(19.0%), 조모가 주중에는 취업모의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3명(14.3%), 조모가 취업모의 집을 매일 방문하는 경우가 1명(4.8%)이었다. 조모의 양육지원 기간은 현재 돌보고 있는 손자녀를 1년 이상 3년 미만 돌본 경우가 11명(52.4%), 3년 이상 5년 미만 돌본 경우가 5명(23.8%)으로 장기간 돌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7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50만원 미만이 6명(28.6%), 월 100만원 이상이 3명(14.3%)이었다.

면접에 참여한 취업모 21명의 연령은 면접 당시 만 29세에서 38세 사이였으며 평균 만 32세였다. 취업모 중 13명(61.9%)은 1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7명(33.3%), 3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1명(4.8%)이었다. 이혼한 취업모 1명(4.8%)을 제외한 20명(95.2%)이 기혼상태의 맞벌이 부부였으나 한 명은 남편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취업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1시간이었는데, 4명(19.0%)을 제외한 17명(81.0%)이 4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였고 이 중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5명(23.8%)이었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1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강사, 교사, 사서, 간호조무사 등)이 8명(38.1%)이었으며, 기업의 관리직이 2명(9.5%), 자영업이 1명(4.8%)이었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재학 및 중퇴 포함)가 9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대졸과 석사(재학 포함)가 각각 5명(23.8%)이었다.

#### 3. 자료분석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자료의 분석은 초월론적(transcendent) 현상학을 제시한 Moustakas(1994)가 수정한 Stevick-Colaizzi-Keen 방법을 따랐다. 우선 자료분석의 전 과정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핵심인 판단중지(epoché) 또는 괄호 치기(bracketing)를 염두에 두고 선입견이나 예상한 연구결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참여자의 경험에 충실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단계로는 첫째,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었다. 둘째, 면접내용에서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고 이러한 진술을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묶어서 코딩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Participants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Grandmothers (N = 21)	M or n (%)	Mothers (N = 21)	M or n (%)
		Occupation	
Relationship with child		Managerial office job	2 ( 9.5)
Paternal grandmothers	8 (38.1)	Supportive office job	10 (47.6)
Maternal grandmothers	13 (61.9)	Teaching/technical job	8 (38.1)
		Self-employed	1 ( 4.8)
Age when interviewed (Range: 54~70)	M = 60.7	Age when interviewed (Range: 29~38)	M = 32.0
Number of children	M = 2.62	Number of children	M = 1.43
1	1 ( 4.8)	1	13 (61.9)
2	11 (52.4)	2	7 (33.3)
3~7	9 (42.9)	3	1 ( 4.8)
Education		Education	
Elementary or less	7 (33.3)	High school	2 ( 9.5)
Junior high	4 (19.0)	2-year college	5 (23.8)
High school	5 (23.8)	4-year college	9 (42.9)
College	4 (19.0)	Master's degree	5 (23.8)
Graduate	1 ( 4.8)		
Marital status		Marital status	
Married	19 (90.5)	Married	20 (95.2)
Widowed	2 ( 9.5)	Divorced	1 ( 4.8)
Average hours of care (per week; range: 25~84)	M = 58.6	Average hours of work (per week; range: 10~70)	M = 42.1
Age of child <sup>a</sup> cared for		Length of current care arrangement	
2~11 months	6 (28.6)	Less than 1 year	3 (14.3)
12~23 months	7 (33.3)	1~2 years	11 (52.4)
2~3 years	4 (19.0)	3~4 years	5 (23.8)
4~5 years	4 (19.0)	5+ years	2 ( 9.5)
Number of grandchildren cared for on a regular basis during the day			
1 grandchild only			12 (57.1)
1 grandchild during the day and an additional child at night or on an irregular basis			4 (19.0)
2 grandchildren			5 (23.8)
Place of care by grandmothers			
Three-generation household			7 (33.3)
Child sleeps at grandmother's house during the week			6 (28.6)
Grandmother sleeps at mother's house during the week			3 (14.3)
Parent brings the child to grandmother's house every day during the week			4 (19.0)
Grandmother visits mother's house every day during the week			1 ( 4.8)
Financial remuneration to grandmother <sup>b</sup>			
None/irregular			2 ( 9.5)
Contribution to living expenses (usually in case of co-residence)			3 (14.3)
KRW 1 ~ 490,000			6 (28.6)
KRW 500,000 ~ 999,000			7 (33.3)
KRW 1,000,000 ~ 1,200,000			3 (14.3)

<sup>a</sup>The youngest child if multiple children were involved. <sup>b</sup>Most participants reported the actual amount or within a range, and their reports were consistent between the mother's and the grandmother's reports except for two pairs. The mothers' reports were used for these two pairs because the grandmothers reported only a broad or vague amount.

\* Copyright (2013) Wiley. This table was used with permission from the following source: Lee, J., & Bauer, J. W. (2013).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381-402.

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한 주제를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단위별로 코딩된 면접자료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주제에 대한 기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면접자료 중 대표적인 부분은 인용하였다(텍스트에 근거한 기술). 또한 3세대 거주형태와 같은 관계 경험의 맥락을 기술에 포함함으로써 경험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구조적 기술). 마지막으로, 기술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고 관점을 다양화해 보는 등 다각도로 해석을 시도하면서 종합적인 글쓰기를 하였다. 한편, 조모와 취업모를 동시에 연구한다는 본 연구의 강점을 살리기 위하여 서로 짝을 이루는 조모와 취업모의 자료를 연속적으로 읽고 분석하였고, 모녀관계와 고부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친조모와 외조모, 성인 딸과 며느리의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 QDA 2010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MAXQDA 상에서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기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 기능을 이용하여 면접 내용 중 의미 있는 진술을 의미단위로 묶어주었다. 주제를 도출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미단위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MAXQDA의 코드체계와 코딩된 면접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제 도출의 근거로 삼았다. 도출한 주제를 기술하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MAXQDA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미단위별로 코딩된 면접내용을 활성화하여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술의 근거로 삼았다.

#### IV. 연구결과

##### 1.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의 부담감과 '부모마음'

###### 1) 취업모 부부와의 관계로 인한 부담감

손자녀 양육지원은 조모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조모들이 '손주는 조심스럽다'고 한 것과 같은 이러한 부담감을 잘 드러낸다. 손자녀 돌봄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손자녀가 조모 본인의 아들이나 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조모들은 손자녀가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지만 여기서 '남'은 조모 본인의 아들이나 딸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조심스러운 존재라고 지각하였다. 간혹 외손자녀는 '남의 집 자식'이라 더 조심스럽다는 조모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조모에게 외손자녀와 친손자녀는 모두 전적으로 맡아 돌보기에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예를 들어 조모들은 손자녀가 다치거나 아플

경우 성인 자녀나 성인 자녀의 배우자가 본인을 원망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고 성인 자녀나 성인 자녀의 배우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 조모들은 손자녀가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에 큰 염두를 두고 손자녀를 돌보았다.

손주가 (내 자식보다) 더 부담은 오죠. 자식은 그냥 내 멋대로 키워도 그냥 그랬는데, 손주가 더 부담스럽지. '아이고 잘 커야 되는데' 그러고. 이거는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서, 사위 자식이고 딸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키우다가 만약 설사병이 났든가 감기가 걸렸던가 하면 내가 잘못했나 하는 게 부담이지. 내 자식은 그냥 추워서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남한테 (책임) 전가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거는 나한테 오잖아 (책임) 전가가, 내가 키우니까. (5G 외조모)

손자녀 양육지원은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는 다른 부담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조모들 사이에서는 '손주 봐 주는 공은 없다'거나 '애 보느니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흔히 하면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가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본인의 상황을 다른 조모들과는 다른 예외적인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조모의 양육지원이 보다 보편적이라고 지각하였기 때문에 친조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조모가 종종 있었다.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한 조모의 부담감은 취업모 부부와의 관계 경험을 통하여 가중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였다. 취업모나 취업모의 배우자가 조모의 양육지원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려고 하거나 손자녀 돌봄 이외에 가사노동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조모의 부담감은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조모가 장기적으로 양육을 지원해 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둘째 자녀를 계획 또는 출산한 경우나 손자녀 양육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이 불투명할 경우 부담감이 커졌고, 취업모 및 취업모의 배우자를 위한 식사준비 등 가사노동을 함께 지원하는 조모는 더 큰 부담감을 느꼈다. 반면에 양육지원 기간을 분명하게 합의한 경우, 손자녀 돌봄 이외의 가사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시간대 이외에는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완화되었다.

애 봐주면 딸 맨날 오지, 사위 오지. 애 봐주는 건 또 봐주는데 밥 해주는 것. 반찬. 어휴,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애만 딱 보고 금요일 날 와서 데려가고 월요일

날 데려오면 그거는 편할 것 같아. 우리 사위도 맨날 애 보고 싶다고 “장모님 같게요.” 애가 보고 싶으니까 봐야지 당연히. 그런데 오면 밥 해줘야 된다는 그게 스트레스가. (중략) 그애 애 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 그런데 우리 딸은 모를 거야 아마. 당연히 엄마는 하는 건 줄 아니까. (19G 외조모)

이외에도 취업모가 일상적인 손자녀 돌봄 이외에 조모가 교육적 활동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거나 특정한 양육방식을 요구할 때 조모의 부담감이 가중되었다. 인터넷이나 육아서적을 통해 다양한 육아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취업모들은 이러한 육아정보에 따라 양육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모들은 영유아기 아동에게 책을 자주 읽어주거나 아동극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연령별 음식조절이나 위생관리 등 양육방식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영유아기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취업모는 결국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게 전문적인 육아정보에 따라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취업모의 태도는 조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우리 딸이 ‘뽀뽀뽀뽀 (119 소아과)’ 그 책을 갖고 와서 그걸 보래. 그래서 내가 갖다 내버린다고 그냥 쳐 박았어. 이걸 보고 과학적으로 (키워 달라는데) “과학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서 아주 내가 갖다 내버린다고 내가 쳐 박았어. (웃음) 골치 아프게 이런 걸 왜 갖다 놓느냐고. 그리고 또 무슨 이유식도 태배로 부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막 욕 했어.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잘하는데. (중략) (연구자 :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셨어요?) 어련히 잘 할 텐데 엄마를 좀 저거 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랬나 모르겠네. (16G 외조모)

몇몇 조모는 손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조모에게 의존하려는 취업모가 이기적이라고 느끼거나 조모의 헌신에 대해 고마운 줄 모른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손자녀 위주roman 생각하고 조모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취업모에게 실망감을 느꼈으며, 조모의 양육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위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외조모도 있었다. 그러나 친조모 중 손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성인 아들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조모는 없었다. 다음은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해 사위와 관계가 약화된 외조모의 이야기이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5일 동안 열심히 봐줬으니까 지네들이 데리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놀러 갈 때는 나한테 맡긴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좀 그런 거 같고. 이제 애를 놔주고 자기네들끼리 문화생활을 하러 다닌다거나 그럴 때. (사위가)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처갓집에 의존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중략) 식사 같은 것도 아이를 맡겼으면 아이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예 주거까지도 이쪽에서 좀 식생활 같은 것도 너무 이쪽으로 의존을 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못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로 인해서도 이미 다 지쳐져 있는데 그 아이로 지쳐져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이지 않는 것뿐인데. (15G 외조모)

## 2) 성인 자녀를 위한 ‘부모 마음’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는 취업모 및 취업모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부모 마음’도 자주 경험하였다. ‘내 새끼가 안 귀하면 손주도 안 귀하지요’(13G 외조모)라는 한 조모의 이야기처럼, 조모들에게 손자녀 양육지원은 궁극적으로는 손자녀를 위해서라기보다 성인 딸이나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수많은 조모가 이러한 태도를 ‘부모 마음’이라고 표현하였다. 조모들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자식의 힘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20G 외조모)으로서, 성인 자녀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성인 자녀의 복지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성인 자녀를 위해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부모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모들은 무엇보다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취업모 부부를 안쓰럽게 지켜보면서 부모로서 ‘희생’ 혹은 ‘양보’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많은 조모들이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손자녀를 데리고 자거나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도와주고 있었다.

나도 혼자서 애 기를 때 멀미를 느꼈는데 혼자서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토요일도 (딸이 퇴근한 후에) 신랑이 조금 있다가 들어오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가는 거야. 지 신랑 들어오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서 간단 말이야. 내 딸 고생 덜 하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지. (4G 외조모)

조모의 ‘부모 마음’은 손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취업모 부부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원동력이었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 식이요법, 건강식품 섭취 등 의식적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조모도 상당수 있었으며 체력적 소진을 피하기 위하여 손자녀 안아주기 등 신체활동을 줄이려고 한다는 조모도 있었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신체적 피로 및 신경통 등의 건강문제나 노화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을 경



힘을 하는 상황에서도 취업모 부부의 심리적 복지를 우선시 하는 조모가 많았는데, 취업모 부부에게는 가급적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다.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겼어. 처음 하는 일이라서 아프더라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로 아프고, 스트레스가 엄청 와. 그런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손주들) 본 엄마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고비를 잘 넘겨야지. 그런데 딸한테는 팔 아프다, 허리 아프다 소리 안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봐주는지 알아요. (웃음) 잘 봐줘야지. (연구자 : 딸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야 그럼 불편할 것 같아. 이왕 봐주는 것 마음 편하라고. 하루에도 문자를 몇 번씩 해. 편하게 지내라고. (19G 외조모)

이러한 ‘부모 마음’은 외조모와의 면접에서 두드러졌다. 면접에 참여한 상당수의 외조모들이 친조모와 외조모를 비교하였다. 즉 과거의 친조모는 친손자녀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오늘날의 친조모는 부담스러운 손자녀 양육지원을 기피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외조모는 손자녀 양육지원이 부담스러워도 취업모로서 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켜보다 보면 손자녀 양육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하였다.

어떨 때는 재 엄마가 늦게 오면 두 애들이 늦게까지 잠을 안자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다 와야 자. 그러면 어쩔 때 짜증스러울 때는 머리에 쥐가 나요. 짜증스러워서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엄마 나도 빨리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 회사 일인데”하면 별 수 없고. 회사가 멀어요. (중략) 막 지쳐서 오니까 안쓰러워 나도.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내가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가지. 힘드니까. 안쓰러우니까. (6G 외조모)

친조모가 손자녀 양육지원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부모 마음’은 성인 아들을 향한 것이었다. 특히 성인 아들과 아들이 꾸린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 심리적 안녕, 원만한 부부관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대부분의 친조모는 아들 부부의 맞벌이 상황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지원을 둘러싼 취업모와의 고부관계도 대체로 부정적이지 않았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친조모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친조모가 성인 아들 부부에게 주택비용이나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성인 아들을 유능한 경제적 부양자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인 취업모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인식하는 측면

이 있었다. 친조모들은 이러한 맞벌이 상황에 다소간의 책임을 느낌으로서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모의 고충에 대해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꼈고, 취업모 며느리를 지원함으로써 성인 아들의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도와준다는 게 이제 첫째 (아들 부부에게) 집이 있었으면 또 다른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 (중략) 사람은 진짜 경제로 말하자면 돈이 앞서니까 어차피 그런 것(집을 사 주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아무튼 둘이 별면 녀석하니까 지들이 생활할 것도 있고. (중략) 남한테 닦아지 말고 부모 때문에 뭐 애 때문에 이런 핑계는 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즐겁게 살아야지. (18G 친조모)

며느리인 취업모에게 느끼는 미안함이나 안쓰러움은 친조모가 취업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배경이 되었다. 이외에도 며느리인 취업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인 아들의 부부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였고, 고부관계가 불편해져서 친조모 대신 외조모가 손자녀를 돌보게 될 경우 성인 아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자식을 참 사랑하고 정말 30년 길러서 결혼 시킬 때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30년 길렀거든요.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거는 없어요. 어떤 엄마나 자식은 계속 사랑하거든요. 죽을 때까지는 사랑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내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자기 마누라를 섹시를 힘들게 하는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정말 아들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11G 친조모)

한편, 연구에 참여한 조모들은 손자녀 돌봄이 ‘부모 마음’에서 우러난 성인 자녀를 위한 지원 제공이었을 뿐 취업모 부부로부터의 향후 부양과 같은 보상을 기대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다. 조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미래에 성인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조모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조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인 아들에게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친조모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간혹 솔직하게 ‘생각은 해 보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성인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할 수도 있으므로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조모도 있었다. 대부분의 조모가 손자녀 양육지원을 부모의

‘책임’, ‘도리’, ‘의무’, ‘숙제’ 등으로 받아들인 반면 노후에 성인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내가 저희들이 애 봐 달라는데 애도 안 봐 주고 나 할 일만 하고 돈 버느라고 안 봐 주는 건 좋아. 그렇지 만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욕심 있어서 애도 안 봐 주고 그랬다면 애들이 생각이 다르지. 다르게 생각했을 거라 싶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나 지금이나 나는 부모로서 나는 저희들한테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 할 일 다 하고 저희들 다 가르치고 이렇게 고생해 가지고 손주까지 봐 주고. 그렇다고 해서 늙어서 저희들한테 짐이 되가지고 돈 타 쓰는 거긴 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던 거고 마음속으로야 부모 자식 시간이니까 의지하고 할 일은 있어도 그런 기대 심리는 별로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 그리고 그만큼 기대고 살지 않게끔 이렇게 이것저것 해 봤는데 모르죠. (9M 친조모)

## 2.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취업모의 일방적 의존

취업모들은 손자녀를 조모에게 맡김으로써 외조모 또는 친조모와 일방적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안 계셨으면 아무 것도 못 했을 거예요’라는 여러 취업모들의 이야기와 같이 조모에 대한 의존은 손자녀 양육에 그치지 않고 가사노동, 주거 등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 생활 자체가 애를 봐 주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생활인데 시어머니가 봐 주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시어머니가 다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되게 고마운 존재이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오히려 내 애를 봐 주고 계시다는 것보다 나를 봐 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7M 취업모, 며느리)

### 1) 불가피하고 만족스러운 의존관계

취업모에게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통해 형성한 의존관계는 불가피한 동시에 만족스러운 관계였다. 무엇보다 이들 취업모에게 있어 조모에게 자녀양육을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여러 명의 취업모가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하여 의존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이 ‘안 봐 주셨으면 그만 두었겠죠’라고 하거나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질적으로

흡족한 보육시설이 거주지역에 존재하지 않거나 대기자가 너무 많아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야근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다. 입주 또는 시간제 탁아모의 고용은 비용부담이 큰 동시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주말에 일을 해야 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모의 양육지원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겼다. 또한 경력단절이 일어날 경우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나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돈도 돈이지만 말길 데가 우선 없는 거예요, 맡기고 싶어도. (마음에 안 드는 어린이집을 보내서) 나 혼자 마음 아프고 그런 거는 나중 일이예요, 말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신세를 (지고) 또 비비는 거예요, 칠판 깔고 그냥 또 엄마한테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중략) 믿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나마, 남 보다는 엄마가 어찌 되었던, 수면제를 넣는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힘들어서 엄마도 힘든 거 알면서 한 마디로 내 자식 내가 키워야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엄마한테 자꾸만 의지하고, 미안한 거 알면서 그렇게. (4M 취업모, 딸)

취업모에게 있어 조모의 양육지원에 따른 의존관계는 만족스럽고 얻는 것이 많은 관계를 의미했다. 취업모는 ‘남’이 아닌 가족에게 어린 자녀를 맡고 맡김으로써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모의 양육지원에 만족하였다. 또한 조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에도 만족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잘 보세요’라고 하는 등 양육경험이 풍부하고 손자녀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모가 취업모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잘 돌보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취업모들은 외조모가 양육을 지원할 경우 매우 만족하였다. 여기서의 만족은 양육의 질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기 하였지만 ‘엄마라서 편한’ 장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외조모에게 양육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친조모에 비해 일상적인 상호작용 및 의존관계 형성에서 심적 부담이 덜하고, 취업모가 선호하는 양육방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모의 고충을 이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외조모의 양육지원에 만족하는 배경이었다.

(엄마가 봐 주기 때문에) 좋은 점은 우선 제가 평소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일하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아기

생각은 거의 안 할 정도로 엄마가 보니까 마음에 안심을 하면서 일에 몰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선 안정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고. (중략) 저도 며느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저희 엄마가 봐 주는 게 더 좋거든요. 시어머니가 봐 주면 저는 싫지만 말 못 하고. (중략) 엄마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봐 주는 게 아이한테도 엄마의 그런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6M 취업모, 딸)

친조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경우에도 취업모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거의 모든 취업모가 외조모가 양육을 지원하는 상황을 취업모에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으나, 외조모가 양육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외조모의 경제활동, 건강 문제, 원거리 거주, 다른 손자녀 양육지원, 사망 등)에는 친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 만족하였다. 친조모가 외조모보다 양육자로서 더 바람직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즉 '더 잘 봐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손자녀를 위해서 친조모의 양육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친조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취업모에게 고부관계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은' 관계였다. 이들 취업모는 시모인 친조모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지만, 양육의 질을 고려할 때 '남'이 아닌 '가족'이라는 점에서 손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돌보는 친조모의 양육지원에 만족하였다. 또한 결혼 초 어색했던 고부관계가 손자녀 양육을 매개로 익숙한 관계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 좀 더 곱게 나오니까. 친정 엄마랑은 되게 많이 싸운대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내가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시부모님하고 살아도 괜찮겠다. 어차피 우리 엄마랑 살아도 맨날 싸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주신다면 차라리 시어머니가 또 잘 봐주시니까. 저희는 워낙에 잘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겠다 싶어요. 지금 와선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8M 취업모, 며느리)

## 2) 조모에게 불리한 의존관계

취업모들은 손자녀 양육지원을 둘러싼 일방적 의존관계에 대해 조모에게 불리하고 죄송한 관계라고 인식하였다. 한 취업모가 조모를 '최대의 피해자'(17M 취업모, 며느리)라고 한 것과 같이 취업모들은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을 조모가 희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감사

하였다. 특히 외조모의 양육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성인 딸을 위해 헌신하는 외조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손자녀 양육으로 힘들어 하는 조모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몇몇 취업모들은 감사나 죄송함에서 그치지 않고 조모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이기적'이라거나 조모를 '착취'하고 있으며 '철판을 깔고' '비비는' '뻘뻘한' 모습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양육지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취업모도 많았다.

저는 나가니까, 나가서 저녁에만 잠깐 보는데도 솔직히 힘들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신랑 출근하면 제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엄마는 그것을 얼마나 힘들까. 솔직히 말을 하면 말하기 전에는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루 종일 아기를 데리고 있어보니까, 힘든 것을 아니까 죄송해요. 솔직히 돈도 많이 못 드리고 돈이라도 넉넉하면 정말. 아기 봐주는 시간을 제가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엄마한테 50만원을 드리는데 50만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망한 웃음) (5M 취업모, 딸)

취업모들이 조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한 배경에는 현재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 조모를 부양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취업모가 딸인 경우는 무남독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딸이기 때문에 부모부양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맡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취업모가 며느리인 경우에도 손자녀 양육지원과 향후 시부모 부양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며느리인 취업모 중에는 손자녀 양육과 무관하게 성인 아들이 시부모를 부양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의 부양을 감안해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현실을 합리화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건강하셔서 그런지 그런 생각(나중에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까지 안 해 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매번 하시는 얘기가 또 내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다. 저희 엄마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 가지고 아직 양쪽 다 건강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저희가 첫째이기는 해요. 오빠(남편)가.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뭐 어떻게 모셔야 되면 모시는 거고요. 그 생각은 안 해 본 거 같아요. (14M 취업모, 며느리)

### 3) 3세대 동거 혹은 유사 동거를 통한 의존관계

세대 간 거주형태는 손자녀 양육을 둘러싼 일방적 의존관계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내었다.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면서 조모와 취업모는 거주형태에 변화를 경험했거나 거주형태가 복잡해 진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조모와 취업모 21쌍 중 1/3에 해당하는 7쌍은 3세대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4쌍은 따로 살던 기혼의 성인 자녀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서 조모의 집에 들어간 형태, 즉 '연어족'의 양상을 띠었다. 이 4쌍 중 3쌍은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 친조모와 3세대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쌍은 친조모와 동거를 하다가 셋째를 낳으면서 친조모가 양육지원을 거부하여 외조모의 집으로 들어온 경우였다. 이외에도 친조모와 동거하다가 최근에 인접 지역으로 분가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취업모들은 3세대 동거에 대해 조부모인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얹혀사는 것'이라고 손자녀 양육지원을 매개로 한 3세대 동거의 의존적 성격을 규정하였다. 취업모의 입장에서 시부모와의 동거는 선택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거주형태이었지만, 시부모에게 양육뿐만 아니라 주거도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만족하였다. 즉 시부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득과 친조모의 손자녀 돌봄 및 가사노동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구적인 이득도 많다고 보았다.

(주변에) “어머님한테 얹혀살죠” 이렇게 얘기하죠. 집도 어머님 집이고. 모시고 사는 건 진짜 아니죠. 모시고 뭘 하는 게 있어야 모시고 살죠. 저희가 돈을 다 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얹혀사는 거 맞으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중략) 어떻게 보면 요즘 엄마들이 되게 약은 거거든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아이를 맡기면) 경제적으로도 나한테 이득이고 사실 직장을 나가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지 부딪힐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얻는 게 더 많으니까. 약은 거죠 젊은 여자들이. 부모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11M 취업모, 며느리)

조모들 역시 3세대 동거는 취업모 부부에게 유리한 거주형태라고 여겼다. 친조모와 취업모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성인 자녀와 3세대 가구를 형성하기로 주도한 것은 친조모였으나, 3세대 동거를 통한 일방적 의존관계에 만족하는 쪽은 취업모인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3세대 가구의 조모는 손자녀와 분리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노동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심리적 부담, 신체적 피로 및 노화, 자유시간 부족 등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3세대 동거에 대

해 부정적 혹은 양가적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들 때문에 같이 살지. 그것도 따로 살면 자유도 더 있고 그럴 텐데, 보통 애들 때문에 같이 살지. 시부모가 막 그렇게 간섭을 하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 같이 사는 것도 저한테 득이 되지 나쁜 건 없잖아요. (중략) 보통 부모들이 자식한테 다 도움을 주지 뭐, 돈 뜯어서 그런 부모들은 별로 없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 도움 되니까 같이 살지 안 그러면 뭐 지들 다 따로 살기를 원하고.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밀어주고 이러지 안 그러면 굳이 같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이야 뭐 그렇게 따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됐지만 요즘 부모들은 다 따로 살려고 그러지 부모가 꼭 같이 살려고 그러는 부모 별로 없어요. 서로 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7G 친조모)

친조모와 3세대 가구를 형성한 경우는 모두 조부모 세대가 성인 아들 및 손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3세대 가구를 형성한 친조모들에 따르면 외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게 될 경우 성인 아들이 처가와 가까워지면서 본가와 소원해 지지는 않을까 혹은 성인 아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모의 눈치를 보거나 양육 및 가사노동을 보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성인 아들 부부와의 동거를 유도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 친조모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미끼'(11G 친조모)로 취업모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래는 3세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친조모와 취업모 며느리의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처갓집 근처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상하더라고. 아직은 내가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갓집 근처로 가서 살면 괜히 그 쪽으로만 쏠리는 거 같고. (중략)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었어요. 친정에서 못 봐 주게 되어서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그러더라고. 하여튼 지내들이 아쉬우니까 들어온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이 공짜가 없어요. (8G 친조모)

그게(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딱 얘기 때문인 거는 아니고, 왜 얘기 때문에 그 본인의 식구가 딴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친정 엄마 마음으로는 '애가 시댁 가서 고생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시댁에서도 '처가살이를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당신 아들, 딸

이 걱정이 좀 되가지고, 서로 봐주신다고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딸이 있어도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8M 취업모, 며느리)

한편, 3세대 동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거주공간을 유지하였지만 3세대 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유사 3세대 가구도 많았다. 조모가 조부와 떨어져서 주중에만 취업모 부부의 집에 와서 생활하는 형태, 손자녀를 날마다 조모의 집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 데려오는 형태, 손자녀는 조모의 집에서 전적으로 생활하고 취업모 부부는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형태, 조모가 취업모의 집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에 귀가하여 잠만 따로 자는 형태, 손자녀와 취업모는 조모의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취업모의 남편은 잠만 따로 자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한 유사 3세대 동거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렇듯 복잡한 3세대 거주형태의 배경에는 누가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가, 조모가 어떤 공간에서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가, 어떤 공간에서 돌보는 것이 취업모에게 유리한가, 3세대 동거의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양육지원을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등이 고려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거주형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세대 동거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3세대 가구의 생활 패턴이나 상호작용 패턴과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었다.

한편, 유사 3세대 가구 중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조모가 주중에 전적으로 취업모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잠만 따로 자는 경우에는 조부와 조모가 주말부부가 되거나 조부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어 조모와 취업모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면접한 참여한 3명의 조모는 경상도, 전라도 등 원거리 지역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혼자 수도권에 올라와 취업모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지내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조부가 있는 집을 방문하고 있었다. 다른 2명의 조모 역시 주중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부와 떨어져서 취업모의 집에서 보내고 주말에만 조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렇게 조모와 조부가 대부분의 시간을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조부는 식사 준비 등을 혼자 해결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조모는 주말에 조부의 식사 준비나 청소 등의 이중 가사 노동을 하게 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통한 의존관계가 조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제일 큰 거는 아빠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왜냐하면 두 분이 되게 친하세요. 금슬도 좋고 그리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아빠도 지금도 가끔 그러시나 봐.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참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려가는 토요일 날 아빠가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좀 미안해요. (연구자 : 아버님 식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차려드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주말에 가서 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카레라이스도 만들어 놓고 국도 끓여 놓고 고기도 재워 놓고. 그럼 아빠가 밥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 (10M 취업모, 딸)

### 3. 조모의 부담감 완화 전략 : 경계 설정

조모들은 지나친 부담감을 피해 나가면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경계 설정이란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조모가 해 줄 수 있는 것과 해 주지 않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의 종류는 크게 현재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와 미래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현재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 설정

현재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란 손자녀 양육의 주도권이나 의사결정권을 취업모에게 줌으로써 조모의 역할과 취업모의 역할을 구분하고, 손자녀 양육을 지원함에 있어 조모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으며 무엇을 해 줄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모든 조모가 언급한 현재의 양육지원에 대한 전략은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였다. 이러한 전략은 조모가 손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손자녀 양육의 주도권이나 책임은 취업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조심스러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모의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이외에도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 전략은 취업모와 손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취업모의 방식을 존중해 줌으로써 취업모와의 긴장상황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의 양육방식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현대의 양육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얘기는 우리 \*씨네 손자지만 일단은 엄마에게 소속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손주 돌을 기르고 내 아이 셋을 기르고 내 판에는 애기 기르는 데는 노후가 너보다 낫다 이렇지만은 그래도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새로운 요즘 지난 애기 기르는 육아방법은 내가 공부해서 네가 나한테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불안감을 없앴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1G 친조모)

현재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에서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 이외에 자주 언급된 전략은 손자녀 교육 맡지 않지 않았다. 여기서 교육이란 책 읽어주기, 한글이나 영어 가르치기, 교육 프로그램에 데리고 다니기, 교육 관련 정보 수집하기 등 주로 손자녀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였다. 대부분의 조모들은 제한된 에너지 수준, 낮은 교육수준, 가사노동 부담 등 조모가 맡고 있는 다른 책임 등을 감안할 때 손자녀의 교육적인 활동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여겼다. 조모들은 '나에게 교육은 기대하지 마라' 혹은 '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취업모에게 반복해서 전달함으로써 교육은 조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경계를 설정하였다.

“주말이라도 너희들(딸과 사위) 애한테 신경을 써가지고 책이라도 한 번 더 읽어주고 가르쳐라. 공부는 너희들이 맡아.” 그러죠. “나는 공부 가르치고 그럴 시간이 도대체 없다. 때 되면 밤해야 하고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지네 엄마 아빠한테 책임전가를 하고, 저희가 어차피 해야 하고 하니까 책임을 지우죠. (1G 외조모)

교육 활동 이외에 조모들이 현재의 양육지원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고 한 부분은 특정 활동 하지 않기, 주말 및 휴일에 돌보지 않기(예를 들어 밤에 데리고 자기, 목욕시키기, 업어주기 등), 식사 준비 및 청소 등 가사노동 하지 않기 등이었다. 몇몇 조모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기도 했다. 일부는 본인의 집에서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조모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한편 취업모의 살림까지 도와주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다. 반대로 어떤 조모들은 취업모의 집에서 머물면서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취업모가 퇴근한 이후에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여 전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구체적인 경계 설정의 영역은 조모에 따라 다양하였으나 조모가 느끼는 손자녀 양육의 강도를 조절하고 과도한 책임을 맡지 않음으로써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계설정 목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애들이 다 이제 주 5일 근무니까. 맨날 나도 주 5일 근무자라고 그러잖아. 나도 이제 금요일 저녁에서부터는 나도 자유라고 내 시간이라고 아무도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때 나가고 막 그러죠. 애들 들어오는 것 보면 얼른 내가 가방 들고 나가고 (웃음)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죠. (16G 외조모)

한편, 취업모와의 면접 중에도 조모의 경계 설정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여 취업모들도 조모의 전략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 중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는 취업모의 입장에서는 조모의 배려로 받아들여져 감사하는 대목이었고, 손자녀 교육 맡지 않기는 취업모의 입장에서 조모의 부담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몇몇 취업모는 책 읽어주기 등 교육적 활동이 손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조모가 교육적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이러한 취업모의 요구가 조모와 갈등상황을 빚기도 하였다. 다음은 손자녀 교육 맡지 않기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용한 외조모의 성인 딸의 반응이다.

애기가 5-6개월 되면서부터 책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고, 뭐도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한데, 제가 못 하니깐 해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집에서 \*\*랑 놀면서 그냥 놀지 말고 책 읽어주면서 놀아.” 라고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지 말라고. 지금도 힘든데 애 교육까지 나한테 다 그렇게 하면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때는 제가 엄마한테 되게 서운했어요. (1M 취업모, 딸)

## 2) 미래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 설정

미래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 설정이란 언제까지 혹은 몇 명의 손자녀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조모의 견해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조모들은 이러한 경계설정을 통해 자유로운 노후를 포기하고 장기간 손자녀 양육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미래의 양육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조모들이 언급한 전략은 한 명, 혹은 드물게 두 명의 손자녀만 돌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돌보는 손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조모들은 둘 이상의 손자녀를 동시에 돌보게 될 경우 육체적 부담이 심하고, 새로 태어난 손자녀를 추가로 돌보게 될 경우 양육지원의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노후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약 1/3의 조모들은 직간접적으로 취업모 부부가 둘째를 출산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둘째 출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했다.

저번에 며느리한테 “둘째 낳으면 친정어머니한테 봐달라고 해라. 둘을 어떻게 보냐?” 그랬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못 말길 형편이면 봐줘야지 어떻게 해. 둘은 낳아야 되니까. 사실 셋은 낳아야지. (연구자 : 셋 낳으면 봐 주시겠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면 7년을 더 봐줘야 되는데 “야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다 늙어서 어떻게 하나. 칠십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애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지네들끼리 편할 생각만 알지 지네들도 내 나이 먹어 보면 알겠지.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지네들도 엄마 나이가 되면 아 우리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겠지. 지금은 자기들이 위주이니까 우선이잖아. 낳으면 봐줘야지 어떻게 해요. 고민은 많아요. (8G 친조모)

손자녀 양육지원에 저항감이 없거나 적었던 조모조차도 이후에 태어나는 손자녀는 돌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직장을 그만 두거나 상대편 조모에게 양육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조모가 한 명의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책임, 도리,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으나 그 이상은 선택사항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조모들은 이후에 태어나는 손자녀는 돌보지 않겠다는 경계로 인해 내적으로 딜레마를 겪었다. 한편으로는 손자녀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자녀를 둘 이상 갖고 싶어 하는 취업모 부부의 욕구도 이해하였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취업모 부부가 자녀를 더 낳는 것을 선뜻 지지하지 못했다.

현재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중단하는 시점을 밝히는 것도 미래의 양육지원에 대한 또 다른 경계설정 전략이었다. 조모들은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어린이집에 가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와 같이 손자녀가 특정한 발달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손자녀 양육지원을 종료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지원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털어 버리고 자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흥미롭게도 조모들은 미래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성인 자녀 부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러한 경계를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취업모 부부가 자녀를 더 낳을 수도 있고 손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더라도 방과후에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면 손자녀 양육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면접 당시 둘 이상의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조모들은 이미 이렇듯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였다. 몇몇 조모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취업모 부부에게는 경계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좀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나는 3년만 봐주고 안

봐준다고 딱 단정은 지었는데 속으로는 조금 더 봐줘야 되겠다 싶어요. 거기(어린이집) 갔다가 또 오는 시간이 6시라는데 애네들 퇴근이 7시이니 맞지를 않지. (중략) 그때 가봐야 또 알지 이제. 내가 3년은 뭇을 지어 봤어. “3년은 내가 봐 줄게.” 그랬더니 3년 밖에 안 봐 준다고,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3년밖에 안 봐 준대 하던데 모르겠어요. 그 때봐서 몸이 췌찮으려나 그것은 장담을 못하니까. (4G 외조모)

취업모들도 미래의 양육지원에 대한 조모의 경계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경계는 취업모 입장에서 이해는 되지만 다소 야속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모의 양육지원 이외의 보육형태를 선호하지 않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취업모의 경우, 둘째가 태어나도 돌보지 않겠다는 조모의 경계는 취업모의 입장에서 볼 때 둘째 출산과 경제활동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를 출산하는 문제로 조모와 취업모가 입장을 달리하여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일정 기간 이후로는 손자녀를 돌보지 않겠다는 경계 역시 대안적인 보육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취업모의 마음을 조금하게 하기도 하였고 경제활동을 중단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모에게는 야속하거나 섭섭한 전략이었다.

엄마는 둘째 낳으면 못 봐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안 낳겠다 그랬어요. (중략) 진짜 둘째 낳으면 엄마가 못 봐 준다고 했고 나도 둘째까지 맡길 염치도 없고. 그럼 당연히 내가 일을 그만 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애를 포기하게 되니까. 애를 가졌으면 몰라도 안 가졌으니까 애를 하나만 낳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M 취업모, 딸)

#### 4. 취업모의 의존관계 유지 전략 : 조모 배려하기

조모들이 부담감 완화를 위해 경계설정 전략을 사용했다면 취업모들 역시 조모를 배려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존관계가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조모의 불만이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해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는 조모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취업모들이 사용한 배려하기 전략은 금전적 보상하기, 요구하지 않기, 손자녀 돌봄 시간 줄이기 등이 있었다. 모든 취업모가 이러한 의존관계 유지 전략을 한 가지 이상 사용하였다.

## 1) 금전적 보상하기

금전적 보상은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였다. 거의 모든 취업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였고 단 2쌍의 경우에만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보상을 하였다. '수고비', '월급', '용돈', '생활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금전적 보상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금전적 보상은 우선 금액이 매우 다양했는데 적게는 월 1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월 120만원까지였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금액이 포함하는 내용도 매우 다양해서 생활비, 손자녀 간식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드리는 경우, 식비나 간식비 등 기타 지출은 별도로 드리고 순수하게 수고비만을 드리는 경우, 3세대 가구에서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조모의 양육지원에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액은 취업모가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알아서' 드리는 경우와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에 조모의 동의를 구한 경우로 나뉘었다. 간혹 조모가 일정한 금액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전적 보상의 액수는 취업모의 소득이나 조모의 경제적 형편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비례 또는 반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취업모가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대가로 조모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의 액수가 의미 있는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조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취업모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매달 한 번씩 드리는 금전적 보상은 감사의 표현이자 의존관계로 인한 심적 부담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취업모들은 금전적 보상을 하기 때문에 떳떳하거나 덜 죄송하다고 했으며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할수록 감사를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취업모들은 조모가 제공하는 손자녀 양육지원은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하는 돌봄 서비스와는 다른, 가족이 돌본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한다고 호혜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각하지는 않았으며 금전적 보상의 액수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가 그렇게 (금전적 보상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엄마가 너무 많다고 괜찮다고. 엄마도 완전히 아니다는 아니었죠. 그런데 돈을 조금만 달라고 엄마는 한 50만원 정도만 있어도 된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까지) 차비하고 왔다 갔다. 매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정도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우겼어요. 엄마 내가 그렇게 조금 드리면 계속 하기

가 힘들 것 같다고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미안하고. 나도 좀 덜 미안해야지 엄마한테 아이들 오래 맡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우겼어요. (중략) (금전적 보상을 드리는 것이) 제 심적으로는 훨씬 편해요. (10M 취업모, 딸)

한편 며느리인 취업모의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돌봄 서비스와는 달리 관계의 주도권을 친조모들이 갖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입주 도우미나 시간제 베이비시터의 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폐가치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친조모의 양육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금전적 보상은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친조모에게 양육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이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제 맘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웃음)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면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니까 요구는 못 하죠. 돌려 돌려 부탁은 드릴 수 있지만 마음대로 요구를 못 하니깐 내 뜻대로 안 되는 듯한. (11M 취업모, 며느리)

조모의 입장에서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은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조모들은 대부분 금액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식 돈'을 받는 것은 그리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취업모가 전달하는 금전적 보상을 당장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의 조모들은 대부분 수고비를 별도로 저축하고 있었다. 이들 조모들은 받은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하였다. 돌려 줄 돈을 받고 있는 이유는 취업모 부부가 조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심적 부담 없이 편하게 조모의 양육지원에 의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며느리가 나중에 잘) 하리라는 생각은 안 먹고 살아요. 나도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내가 하고 있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략) 애들한테 잘하라는 건 없어요. 아직은. 너희들 나한테 잘 해라 잘 해라 아직은. 주면은 거부는 안 하고 받으려고요. 왜? 받아서 모았다가 다시 주더라도 알아야 되니까.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 (14G 친조모)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조모의 경우 금전적 보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조모는 취업모 부부에게 생활비를 의지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취업모를 돕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조모의 경우 노동의 강도가 손자녀 돌봄과 비슷하거나 약한 청소나 식당 일 등을 해도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임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 돌봄이 생활비 조달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였다. 한편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도 선물, 외식, 간식 등 물질적인 보상을 꾸준히 제공하는 전략도 언급되었다.

## 2) 요구하지 않기

요구하지 않기는 손자녀 돌봄과 관련해서 특정한 양육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조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업모의 전략이었다. 조모가 현재의 돌봄에 대한 경계 설정의 일환으로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 주기 전략을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모도 요구하지 않기 전략을 통해 서로의 양육방식을 존중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친조모의 양육지원에 의존하는 취업모의 경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관계라는 특성상 요구하지 않기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전략 사용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고부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일단은 제 뜻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거면 제 생각대로 제 육아방식대로 키우고 싶으면 제가 키워야죠. 그 부모님한테 맡기고 나서 제 뜻대로 100% 키우기를 바란다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마음을 다스렸어요. 포기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애기를 이유식을 해 주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극성이잖아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내 아이한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해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애기 먹는 거니까 조금씩 만들어서 그날그날 만들어서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힘드시니까 3일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조금씩 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마음을 비웠어요. (9M 취업모, 며느리)

간혹 요구하지 않기 전략을 사용하는 대신 책 읽어주기, 과자 먹이지 말기, 보행기 태우지 말기 등 구체적인 양육방식을 조모에게 요구하는 취업모도 있었다. 이러한 취업모들은 조모의 '눈치'를 잘 살피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안정적 의존관계에 치명적인 타격

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의 사안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업모는 조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모의 양육방식을 존중하고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의존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요구하지 않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 3) 손자녀 돌봄 시간 줄이기

조모의 손자녀 돌봄 시간 줄이기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린이집과 조모의 돌봄 병행하기,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하기, 특정한 돌봄 관련 활동(예를 들어 데리고 자기, 젖병 소독, 이유식 만들기)은 취업모의 활동으로 고정하기 등이 있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 자유시간 드리기, 휴가 드리기, 여행 보내 드리기 등 조모가 손자녀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취업모는 조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조모의 욕구를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현재의 의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애가 돌 지나고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때부터는 어머님이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애하고만 있어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계속 따라 다니셔야 되니까. 저도 회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바로 애를 제가 또 배턴 터치해서 봐야 되니까 저희 집도 엉망이고 어머니도 피곤하시니까 어머니도 집도 엉망이고. 그런 게 계속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다가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아버님이 활동성이 굉장히 있으셔서 어머님하고 같이 어디를 다니시고 싶으신데, 어머님은 애 때문에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귀찮아하시고 다텐이 좀 있으시고 이랬어요. (중략)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에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3M 취업모, 며느리)

조모의 손자녀 돌봄 시간 줄이기는 취업모에게 간단하지 않은 전략이었다. 취업모가 귀가 후 또는 주말에 자녀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나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등 대안적인 양육서비스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조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거나 심각한 경우 양육지원을 중단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모의 돌봄시간 줄이기는 취업모의 입장에서 의존관계를 유지할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었다.

## V. 논 의

본 연구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는 취업모와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와 '조모의 양육지원을 받는 취업모는 조모와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이었다.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모의 관계 경험은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취업모 부부와의 관계로 인한 부담감과 성인 자녀를 위한 '부모 마음'으로 구조화되었다. 취업모의 관계 경험은 손자녀 양육지원을 통한 일방적 의존관계로 대표되었는데, 이러한 의존관계는 불가피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이자 조모에게 불리한 관계로 인식되었다. 3세대 동거 혹은 유사 동거는 이러한 의존관계의 중요한 맥락이었다. 한편, 면접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모와 취업모가 사용한 전략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조모는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한 부담감 완화를 위한 경계 설정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계는 현재의 손자녀 돌봄과 관련된 경계와 미래의 돌봄과 관련된 경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취업모는 의존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금전적 보상하기, 요구하지 않기, 손자녀 돌봄 시간 줄이기가 대표적인 전략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모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와는 달리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양측의 목소리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은 취업모의 경험에도 주목함으로써 손자녀 양육지원을 둘러싼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며 조모와 취업모는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가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동시에 한다는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Choi et al., 2012; Kim, 2007; Kim & Bang, 2011; Kim & Chung, 2010; Kim & Chung, 2011; Kim & Seo, 2007; Yee et al., 2009)를 지지하는 동시에 이러한 양가적 경험이 취업모와의 관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1. 세대관계 및 친족관계 관련 이론 및 개념과의 연결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양가성(intergenerational ambivalence)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Lüscher, 2000, 2004; Lüscher & Pillemer, 1998). Lüscher(2000: 15)에 따르면, 양가성이란 '양극화된 상태로 공존하는 감정, 사고, 의지, 행동, 사회관계, 구조'로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양립불가

능(irreconcilable)'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양가성에는 사회적 양가성과 심리적 양가성의 두 차원이 있다(Connidis & McMullin, 2002; Lüscher & Pillemer, 1998). 사회적 양가성이란 거시사회구조 수준의 개념으로 '태도, 신념, 행동에 대한 모순적인 규범적 기대'(Merton & Barber, 1963: 94-95)가 존재할 때 혹은 '특정 역할을 사회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규범이 대립'(Merton & Barber, 1963: 99)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심리적 양가성이란 심리적, 주관적 모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충된 감정과 동기가 공존할 때 발생한다. 세대 간 양가성은 이러한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에서 공존할 수 없는 모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Lüscher & Pillemer, 1998).

본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들은 사회적 양가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모들은 한편으로는 '부모 마음'을 토대로 취업모 부부를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자녀가 아닌 성인 자녀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며 주변의 많은 조모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즉,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도리'라는 규범과 '예외적인 일'이라는 상충된 규범적 기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양가성의 상황에서 취업모 부부가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거나 장기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실망이나 원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성인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 즉 '부모 마음'과 모순되는 것으로 사회적 양가성이 심리적 양가성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자녀 돌봄에 따른 조모의 관계 경험을 보면 사회적 양가성과 심리적 양가성 모두 친조모보다 외조모가 강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조모는 출가외인 규범이 존재했던 과거와는 달리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기대되는 사회 분위기와 '손주 봐 준 공은 없다'며 손자녀 양육지원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장노년기 여성들의 인식 사이에서 사회적 양가성을 경험하였다. 외조모는 손자녀는 친가에서 돌본다는 전통적 부계 규범과 외가의 양육지원이 오히려 더 보편적이 된 양계화 경향 사이에서 사회적 양가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심리적 양가성 역시 친조모보다 외조모가 강도 높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외조모는 성인 딸이 취업모로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함으로써 겪게 되는 고충에 대해 어머니로서 안쓰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려는 성인 딸에게 부담감이나 실망감을 갖게 됨으로써 심리적 양가성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결과, 친조모와 취업모의 고부관계에서도 심리적 양가성이 다소 발견되었으나, '부모 마음'에서 오는 안쓰러움과 의존관계로 인한 실망감 모두 외조모가 모녀관계에서 느끼는 정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친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맥락에서는 성인 아들의 경제적 복지와 심리적 안녕을 중시하는 ‘부모 마음’이 두드러질 뿐 부정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심리적 양가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신전통주의 성역할 분담의 영향으로 맞벌이 부부인 성인 아들조차도 자녀양육에서는 여전히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친조모가 손자녀 양육지원 과정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성인 아들이 아닌 취업모인 며느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외조모는 취업모의 남편인 사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교류하게 되는 사위를 위해 식사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전통적 규범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에서 사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평등적 성역할 규범이 공존함으로써 사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대 간 양가성은 국내외의 연구에서 대부분 성인 자녀가 경험하는 양가성을 위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 세대가 경험하는 세대 간 양가성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연어족, 켄거루족, 기생독신 등으로 대표되는 성인 자녀의 부모 의존을 연구함에 있어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을 적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이론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세대 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지원교환을 지연된 호혜성(deferred reciprocity, delayed reciprocity)이나 생애과정 호혜성(life-course reciprocity)의 개념으로 설명한다(Antonucci & Jackson, 1989; Silverstein et al., 2002; Uehara, 1995). 이 개념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지원과 같은 성인 자녀를 위한 지원은 추후 조모가 취업모 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조모와 취업모는 모두 현재의 손자녀 양육지원과 미래의 노부모 부양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며, 현재 취업모가 조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추후 노부모 부양으로 이어지는 호혜성의 원칙보다는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인 자녀를 도와주는 이타주의(altruism) 모델(Becker & Thomas, 1976; Boulding, 1973)이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미래의 노부모 부양은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호혜성이 부양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맥락에서 호혜성 원칙과 이타주의 모델 중 어떤 개념이 더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친조모가 양육을 지원하는 사례에서 추후 노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간혹 언급된 점을 감안할 때

성인 자녀의 성별로 지연된 호혜성의 개념이 상이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이후 성인 자녀로부터의 지원수혜와 관계가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Geurts et al.(2012)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 아들에게 손자녀 돌봄을 지원한 노부모는 향후 아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성인 딸에게 손자녀 양육을 지원한 경험과 딸로부터의 지원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 자녀의 성별에 따라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과 추후 부양수혜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성인 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와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가족에서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향후 조모의 부양주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보다 정교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취업모 가족에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주체에 따라 친조모 또는 외조모와 일방적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부모-자녀관계가 도구화되는 한국가족의 트렌드(여성가족부, 2011)에서 아들과 딸의 구별이 약한 양계적 특성을 보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모가 경험하는 ‘부모 마음’의 내용에서 친조모와 외조모 간에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호작용 빈도나 내용에서 보이는 양계적 특성이 상호작용 동기에서 부계와 처계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조모가 손자녀 양육지원을 선택할 때 친조모에게는 성인 아들의 경제적 역할 지원이, 외조모에게는 성인 딸의 돌봄 역할 지원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함을 밝힘으로써 조모의 양육지원의 기저에 ‘전통적 성역할 유지기제로서의 양계적 가족주의’가 있음을 지적한 Lee and Bauer(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친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매개로 3세대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외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에서는 3세대 가구가 흔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손자녀 양육지원은 부계와 처계에서 모두 활발할 지라도 거주유형과 관련해서는 부처제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의존하더라도 성인 딸이 노부모를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조모나 취업모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인 자녀를 위한 지원에서는 양계적 특성이 발견되기는 하나 향후 노부모 부양에서도 양계적 특성이 발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라 3세대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 손자녀만 조부모와 지내는 경우, 조모가 조부와 떨어져 취업모 부부의 집에서 지내는 경우, 주중

과 주말에 함께 지내는 가족이 다른 경우 등 다양한 세대 간 거주양식이 발견되었다. 이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과 같은 세대 간 지원 교환의 상황에서 거주양식은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세대 간 거주양식은 비단 손자녀 양육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노부모 돌봄 등 다른 세대 간 지원의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동거를 연구함에 있어 고정적이지 않은 다양한 패턴의 거주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모와 취업모는 각각 부담감 완화를 위한 경계 설정 전략과 일방적 의존관계 유지를 위한 배려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조모의 부정적 경험의 내용은 기술하였으나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다. 다만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대처경험에 관한 Kim and Chung(2010)의 연구에서 드러난 '내 주장하기'와 '자녀에게 일임하기'가 본 연구에서 발견한 현재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양육지원에 대한 전략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를 함께 발견함으로써, 조모의 경계가 현재 취업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취업모의 추가 출산여부나 취업상태 유지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은 자녀를 전혀 낳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둘째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때문임을 감안할 때, 양육지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조모가 추가의 손자녀는 돌보지 않겠다고 설정하는 미래의 돌봄에 경계는 취업모의 추가 출산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해외 연구결과(Thomese & Liefbroer, 2013)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근 출산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취업모 가족에서 조모가 양육지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현 상황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최근의 정책안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조모의 양육지원을 통한 의존관계는 취업모에게 불가피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였다는 점을 토대로 볼 때, 조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은 취업모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모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부담감 완화를 위해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취업모의 의존적인 태도나 기대는 조모의 부담감을 악

화시켰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 대한 수당 지급은 조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취업모의 기대나 의존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모의 부담감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모 부부가 조모에게 전달하는 금전적 보상은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감사의 표현 등 심적 보상의 상징적 기능을 했다는 점도 조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정책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전적 보상의 주체가 성인 자녀에서 정부로 바뀌게 될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조모가 경험하는 심적 보상은 사라지거나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심적 보상이 감소하게 되면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손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조모의 동기는 더욱 약화될 지도 모른다. 또한 노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현금을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의 가족문화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성인 자녀가 금전적 보상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만약 금전적 보상의 상징성 때문에 정부의 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취업모 부부가 금전적 보상을 선택한다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적인 의도는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 3.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취학 손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을 주고 받는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생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유아 양육지원의 제공과 수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학습 및 학교생활 보조 등으로 돌봄의 성격의 다를 수 있는 초등학생 손자녀 양육지원과 관련된 관계 경험은 이해하지 못했다. 초등학생 양육지원의 경우에는 세대 간 지원이 상당히 장기화된 사례가 많을 것이므로 향후 초등학생 손자녀의 양육지원 경험을 연구한다면 세대 간 지원 제공과 수혜의 장기적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조모와 취업모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질적 연구로서는 자료가 방대하여 구체적인 환경별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한 거주유형 등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손자녀 양육지원만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어족' 혹은 부모의존형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에서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3세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만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의존형 동거 가족에서 세대 간 지원 제공 및 수혜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

는 횡단적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조모와 취업모가 향후 노부모 부양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지 현 시점에서 인식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실제 부양이 필요한 미래에 손자녀 양육지원을 주고받은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노부모 부양에서 양계적 특성이 나타날 것인지, 지연된 호혜성 개념이 성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경험한 조모와 취업모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

- 동아일보(2012). 부모 품으로 회귀... '연어族'이 늘고 있다 (2012년 8월 24일자).  
<http://news.donga.com/Society/New2/3/03/20120824/48840782/1>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555-13).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 조선일보(2013).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 月40만원 준다(2013년 3월 18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9/2013031900168.html?news\\_Head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9/2013031900168.html?news_Head1)
- 여성가족부(2011). 가족정책기초연구(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215-10, 연구보고 2011-56). 서울: 여성가족부.
- Antonucci, T. C., & Jackson, J. S.(1989). Successful aging and life course reciprocity. In A. Warnes (Ed.), *Human aging and later lif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83-95). London: Hodder & Stoughton.
- Arthur, S., Snape, D., & Dench, G.(2003). *The moral economy of grandparenting*. London: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 Bae, J. H.(2007).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parenting grandparents and co-parenting grandparents-. *Social Welfare Policy*, 29, 67-94.
- Baek, K.-H.(2009). Impact of rearing grandchildren on women's health-Physical and mental health-. *Women's Health*, 10(2), 87-112.
- Baek, S., Koh, C.-Y., Yang, J.-S., & Baek, H.(2011). *The status of the aged raising grandchildren in Gyeonggi province and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childcare Support* (Policy Report No. 2011-22). Suwon: Gyeonggido Family and Women's Research Institute.
- Baydar, N., & Brooks-Gunn, J.(1998). Profiles of grandmothers who help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Family Relations*, 47, 385-393.
- Becker, G. S., & Thomes, N.(1976).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42-163.
- Boulding, K. E.(1973). *The economy of love and fear: A preface to grants economics*. Belmont, CA: Wadsworth.
- Bowers, B. F., & Myers, B. J.(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 303-311.
- Brandon, P. D.(2000). An analysis of kin-provided child care in the context of intrafamily exchanges: Linking components of family support for parents raising young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9, 191-216.
- Brown-Lyons, M., Robertson, A., & Layzer, J.(2001). *Kith and kin- Informal child care: Highlights from recent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Retrieved from [http://www.nccp.org/publications/pdf/text\\_377.pdf](http://www.nccp.org/publications/pdf/text_377.pdf)
- Cardia, E., & Ng, S.(2003). Intergenerational time transfers and childcar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6, 431-454.
- Chin, M., Lee, J., Lee, S., Son, S., & Sung, M.(2012).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53-64.
- Choi, I.-H., Kim, Y. R., & Yeom, J.(2012). *The profile of family caregiving as provided by female older adults in Korea* (2012 Research Report No. 3).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ung, C. W., & Kim, M. J.(2010). Grandmother's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by grandparenting.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6, 288-296.
- Cong, Z., & Silverstein, M.(2011). Intergenerational exchange between parents and migrant and non-migrant sons in rural China. *Journal of Marriage*

- and Family, 73, 93-104.
- Connidis, I. A., & McMullin, J. A.(2002).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family tie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58-567.
- Dimova, R., & Wolff, F. C.(2008). Grandchild care transfers by ageing immigrants in France: Intra-household allocation and labour market im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4*, 315-340.
- Fuller-Thomson, E., & Minkler, M.(2001).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 201-209.
- Gattai, F. B., & Musatti, T.(1999). Grandmothers' involvement in grandchildren's care: Attitudes, feelings, and emotions. *Family Relations, 48*, 35-42.
- Geurts, T., Poortman, A.-R., & van Tilburg, T. G.(2012). Older parents providing child care for adult children: Does it pay off?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 239-250.
- Goetz, J., & LeCompte, M.(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Y.: Academic Press.
- Goodfellow, J.(2003). Grandparents as regular child care providers: Unrecognised, under-valued, and under-resourced.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8*(3), 7-17.
- Goodfellow, J., & Lavery, J.(2003). Grandparents supporting working families: Satisfaction and choice in the provision of child care, *Family Matters, 66* (Spring/Summer), 14-19.
- Gray, A.(2005). The changing availability of grandparents as carers and its implications for childcare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34*, 557-577.
- Gubrium, J. F., & Holstein, J. A.(1990). *What is family?* Mountain View, CA: Mayfield.
- Hagemester, A. K., & Rosenblatt, P. C.(1997). Grief and the sexual relationship of couples who have experienced a child's death. *Death Studies, 21*, 231-252.
- Han, G., & Yoon, S.(2004). The bilateralization of the kinship relation in Korean families: Focused on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2), 177-203.
- Hank, K., & Buber, I.(2009).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Findings from the 2004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s, 30*, 53-73.
- Holstein, J. A., & Gubrium, J. F.(1995). *The active interview*.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ang, Y.(2011).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 role of resources, type of care and perception of caregiving.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1), 73-97.
- Kataoka-Yahiro, M. R., Ceria, C., & Yoder, M.(2004). Grandparent caregiving role in Filipino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1*, 110-117.
- Katras, M. J., Zuiker, V. S., & Bauer, J. W.(2004). Private safety net: Childcare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low-income families. *Family Relations, 53*, 201-209.
- Kim, D. B., Park, E. Y., & Kim, S. J.(2010). The influence of social participation on depression of parenting grandparents and co-parenting grandparents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4), 183-209.
- Kim, E. J., & Chung, S. D.(2011). A study on the adaptive experience of a grandmother raising grandchildren: Focused on family with working moth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1*, 177-213.
- Kim, E. J., & Seo, Y. H.(2007). A qualitative study on child-rearing by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2), 175-192.
- Kim, I. J., Lee, S. I., & Lee, S. H.(2010). A qualitative study on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5), 73-85.
- Kim, M.(2007). A study of the caregiving burden on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A phenomenological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914-923.
- Kim, M.(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life satisfaction i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5*(3), 56-65.
- Kim, M. H., Seong, K. O., Paeng, K. J., Choi, H. J., & Choi, S. Y.(2011). Factors affecting the conflict betwee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d

- adult children: Focusing on grandparents'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 905-923.
- Kim, M. J., & Chung, C. W.(2008). Development of a "Grandmothering Stress Index" for Korean day-care grandmother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4(1), 56-65.
- Kim, M. J., & Chung, C. W.(2010). Coping experiences with grandparenting stress of co-parenting grandmother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3), 137-153.
- Kim, Y., & Bang M.(2011). Experience of grandmother's caring for grandchild.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2(1), 59-72.
- Kriz, K.(2005). How grandmothers become "second moms": Family policies and grandmothering in Britain, Germany and Swede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Mothering*, 7, 49-62.
- Lee, H. J., & Yun, E. J.(2011). A comparative study of parental experience of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with primary and partial responsibilities. *Korean Journal of Infant and Child Education*, 15(4), 179-200.
- Lee, H. S.(2007).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n psychological experience of grandmother who care for a grandso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8(1), 67-78.
- Lee, J. Y., Kim, W. K., & Chung, K. M.(2009). The study of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parental behavior in partial caregiving-grandmothers-Comparing with caregiving-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441-458.
- Lee, J., & Bauer, J. W.(2010). Profiles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 455-475.
- Lee, J., & Bauer, J. W.(2013).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381-402.
- Lüscher, K.(2000). *Family issues between gender and generations* (Seminar report,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Vienna: Austrian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 Lüscher, K.(2004). Conceptualising and uncovering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In K. Pillemer & K. Lüscher (Eds.),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s: New perspectives on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pp. 23-62). Oxford: Elsevier Science.
- Lüscher, K., & Phillemer, K.(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13-425.
- Merton, R. K., & Barber, E.(1963). Sociological ambivalence. In E. Tiryakian (Ed.), *Sociological theory: Values and sociocultural change* (pp. 91-120). N.Y.: Free Press.
- Moustakas, C.(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Oh, J.(2006). Care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in employment mother's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 368-376.
- Oh, J.(2007). A structural model on the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 201-211.
- Ok, S. W.(2011). Continuity and change in patrilineal culture of Korean families. In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Ed.), *Korean families: continuity and change* (pp. 1-18).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Park, H. J., & Jung, H. M.(2010). The temperament of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grand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4(1), 1-11.
- Patton, M. Q.(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th ed.). Thousand Oaks, CA: Sage.
- Settles, B., Jia, Z., Mancini, K., Rich, A., Pierre, S., & Oduor, A.(2009).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Emerging roles and exchanges in global perspectiv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0, 827-848.
- Shivers, E. M.(2006). A closer look at kith and kin care: Exploring variability of quality within family, friend and neighbor car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11-426.
- Silverstein, M., Conroy, S. J., Wang, H. T., Giarrusso, R., & Bengtson, V. L.(2002). Reciprocity in parent-child relations over the adult life cours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 Social Sciences*, 57B, S3-S13.
- Sun, S. H.-L.(2008). 'Not just a business transaction': The logic and limits of grandparental childcare assistance in Taiwan. *Childhood*, 15, 203-224.
- Sung, M.-A.(2006). Bilateralization phenomena in Korean families: A qualitative approac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3), 59-72.
- Thomese, F., & Liefbroer, A. C.(2013). Child care and child births: The role of grandparent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381-402.
- Uehara, E. S.(1995). Reciprocity reconsidered: Goulder's "moral norm of reciprocit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483-502.
- Uttal, L.(1999). Using kin for child care: Embedment in the socioeconomic networks of extend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845-857.
- Vandell, D. L., McCartney, K., Owen, M. T., Booth, C., & Clarke-Stewart, A.(2003). Variations in child care by grandparent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375-381.
- Wearing, B. M., & Wearing, C. G.(1996). Women breaking out: Changing discourses on grandmotherhood? *Journal of Family Studies*, 2, 165-177.
- Won, S. J.(2011). The effect of grandparenting on the grandparent's depression: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ree generation family and non-three generation fami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3), 33-56.
- Yang, S. J., Chung, K. M., & Kim, W. K.(2008).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ay-care grand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4(3), 59-72.
- Yee, O.-H., Ha, J.-Y., Lee, J.-R., & Whang, E.-H.(2009). Lived experiences of grandmothers caring for grandchild whose parents are working together.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0(1), 1-13.

접수일 : 2012년 11월 27일

심사일 : 2013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1월 29일